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 1. 실만한 물가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2. 2024 년 표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엡 4:12)
- 3.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 4.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 5. 사순절(2 월 14-3 월 30 일):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목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6. 새벽 예배에 레위기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 7. Daylight Saving Time: 3 월 10 일 새벽 2AM => 3AM 으로 변경됩니다.
- 8.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9. 갈라디아서 5 장 24 절 (2024 년 3 월 성경 암송 구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10.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9 장 (통 53)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26. 사순절 (3)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543 / 찬 382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2 장 (통 347)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Psalm) 22:1-10 (p.817)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신앙 고백
The Confession of our faith during times of tribulation

*찬 송 Hymn	545 장 (통 344)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말씀 노트 ||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신앙 고백

시편 22 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2:1-21: 고통 가운데에서 다윗의 탄원

22:22-31: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다윗의 찬양과 감사

(시 22: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 22:2)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시 22:3)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 22:4)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이다 (시 22:5)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이다

(시 22: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시 22: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시 22: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 22: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이다 (시 22:10) 내가 낳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이다

|| 목회와 삶 || 목사님 사순절에는 금식을 꼭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용서함을 위한 회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금식을 원하고 계십니다(율 2:13).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금식을 행하면서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사 58:5). 그러나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행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했고(사 58:3b),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켰으며(58:3c),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주먹질까지 했습니다(58:4). 금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금식은 회개의 모습 가운데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사 58:6), 더불어 가난하고 연약한 친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사 58:7). 사순절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금식에 관하여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설명할 때에 ‘금식’이라는 단어 앞에 금식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디어 금식,’ ‘카페인 금식,’ ‘고기 금식,’ ‘탄산 음료 금식’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금식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금식의 시간에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미디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금식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미디어 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금식의 본질적인 행동의 의미를 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금식을 언급할 때에는 금식에 참여하는 이유를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금식에 참여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사순절 기간에 환경과 관련하여서 ‘보호’를 언급하면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적절한 사용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순절에 금식을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금식은 꼭 사순절 기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참여해야 합니다.

(율 2:12-13a)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